

1.



2.



3.



1. '아들들' 스틸컷  
2. '움베르토 에코...' 스틸컷  
3. '세입자' 스틸컷

12월 광주극장 개봉작

광주극장이 연말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영화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국내외 영화제 수상작부터 다양한 소재의 예술영화까지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개봉하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세계 우수 영화제

초청·수상작부터

책·도서관 가지

담아낸 다큐까지

오는 6일 영화 '미망'

김태양 감독 GV도

'언니 유정' 스틸컷



# 연말연시 영화 한편 보며 따스한 겨울나기 어때요

먼저 4일 개봉하는 영화 '언니 유정'은 예기치 못한 한 사건으로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매의 성장과 화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정해일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고등학교 내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의 당사자임을 고백한 기정과 동생 기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언니 유정 그리고 이 사건의 비밀을 쥐고 있는 희진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마주하게 된 세 인물이 겪게 되는 딜레마를 관찰한다.

같은 날 개봉하는 '세입자'는 방구석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입자들의 분투를 통해 환경오염, 양극화, 주거난 등을 풍자하는 영화로, 장르적 상상력과 블랙 유머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블랙 호러 작품이다. 호러 장르물에 대한 욕망을 선보여왔던 윤은경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한층 더 세련된 장르성과 비판적인 메시지를 결합시켜 '한국 장르 영화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평을 받았다.

6일에는 영화 '아들들'이 스크린에 걸린다. 교도관 '에바'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미켈'을 감옥 내부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고, 복수를 위해 그가 있는 최고 보안 시설로 옮겨지며 펼쳐지는 일들을 그린 북유럽 프리즌 스릴러다. 2024년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 노미네이트와 더불어 제48회 홍콩국제영화제 '파이어버드상' 수상, 제35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나, 그리고 더 나은 버전의 나와의 지독한 대결을 그린 논스톱 블러디 스릴러 '서브스틴스'는 11일 개봉한다. 현대사회의 미를 향한 어긋난 욕망을 지독한 광기로 풀어내며 비명, 박장대소, 합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진풍경을 연출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역할을 맡은 할리우드 톱배우 데미 무어는 10kg이 빠질 정도의 열성적인 열연과 함께 연기 인생 최고의 커리어를 선보였다. 77회 칸국제영화제 각본상과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관객상을 수상했다.

클레어 키건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 (11일 개봉)도 관객들과 만난다. 저자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배우 길리언 머피가 제작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겨울, 가족들과 소박하게 살아가던 석탄상인 빌 필름이 삶을 되돌아보며 내리는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올해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됐으며 은곰상(조연연기상)을 수상했다.

11일 또다른 개봉작 '움베르토 에코, 세계의 도서관'은 베스트셀러 '장미의 이름' 저자 움베르토 에코가 소장한 약 만권의 책, 그가 쓴 저서와 삶,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 책과 도서관의 소중함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에코가 서거하기 1년 전인 2015년 그의 자택 도서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책과 도서관에 관한 생전 인터뷰, 강연, 연설을 담은 아카이브 영상, 그와 평생 함께 했던 동료·유족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오늘날의 세대에서 책과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상기시키는 영화다.

한편 오는 6일 오후 7시 20분에는 관객 8천명 돌파를 앞둔 영화 '미망'의 김태양 감독이 광주극장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미망'은 길을 걷다 우연히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를 마주친 '여자'의 시간을 따라가는 공화문 로맨스다. /최명진 기자

## BBS광주불교방송, 첨단2지구로 사옥 이전

BBS 광주불교방송이 광주 북구 연제동 첨단 2지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한다.

새 사옥인 허드슨1041 빌딩은 최갑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일건설 자회사 소유 건물로, 지난해 2월 준공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지난 4월 최 사장 취임 이후 사옥 이전 작업에 들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오는 6일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기상악화로 무등산 송신소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13일 이전하기로 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이 건물 13층에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특히 스튜디오 영상 등을 보여주는 '보이는라디오' 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스튜디오를 갖춰 청취자들에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갑렬 사장은 "내년이면 개국 30주년을 맞는 광주불교방송이 사옥이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며 "방송포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묵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흥 많은 도깨비와 전통연희 한마당

7-8일 ACC 어린이극장

"전통연희와 이야기꾼 박첨지의 만남을 통해 흥 많은 한국 도깨비 매력에 빠져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7-8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2024 ACC 공동기획 팻츠플레이 마지막 작품인 국악 인형극 '연희도깨비'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흥부와 놀부', '도깨비와 개암나무' 등 익숙한 전래동화를 엮어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육신 많은 형 놀새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덕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도



깨비와 마주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공연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치가 더해지며 흥을 돋운다. 무대에서는 막대를 조정해 움직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인형극 '달미'와 대접 돌리기 '버나', 탈놀이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덕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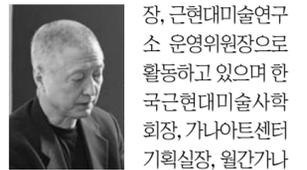
## 미술사학자 최열이 들려주는 근대미술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포럼...지사화가 예술세계 논의

지조와 절개를 회화에 담은 지사(支士)화가. 의병 및 독립군 출신 화가들의 미술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내는 포럼이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5일 오후 3시 본관 세미나실에서 최열(사진) 미술사학자를 초청해 2024 미술관 포럼 아홉 번째 프로그램 '근대미술의 신세계-지사화가'를 개최한다.

최 미술사학자는 인물미술연구소



장, 근현대미술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가나아트센터 기획실장, 월간가나

아트 편집장 등을 역임하며 미술사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다. 포럼 후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마련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